



壽永電機企業(株), ISO 9001 인증 획득

壽永電機企業(株)(代表: 裒壽億)가 국내 무정전 전원장치(UPS)업계 최초로 한국품질인증센터로부터 설계관리를 포함한 전 시스템 대한 국제품질시스템인 ISO 9001을 획득함으로써 기술적 개가를 이뤘다.

이에 수영전기기업은 창립 20주년기념 행사 및 UPS업계 최초 ISO 9001 인증획득에 따른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75년 설립된 이래 국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전문 선두업체로서 몰드변압기, 전자교환기용전원장치, 자동전압조정기, 유도형자동전압기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10년전부터 한국통신으로부터 교환기용 직류전원장치에 대한 품질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꾸준히 납품하고 있는 것을 비롯 안정적 품질이 요구되는 군납과 한국전력공사의 수·화력발전설비는 물론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로 지정되는등 대내적으로 제품의 품질신뢰성을 확보했다.

또 최근 해외 진출에도 주력, 홍콩 동남아서남아 일본 미국등지 시장에 수출하고 있음은 물론 인도 스리랑카등에도 제조기술을 수출하는 등 국제적 기반도 구축하는 한편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20%가 늘어난 1백8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와함께 수영전기기업은 기술개발 품질보증확보등 고객만족의 품질경영에 주력해온 결과 지난해 품질경영 1등급 공장으로 지정 받았고 이를 통해 이번 품질보증시스템중 가장 까다롭다고 알려진 ISO 9001획득을 위해 지난 92년말 기존 품질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ISO 추진본부를 구성 인증과 관련한 20개 항목에 대한 사내교육 강화, 내부 품질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제심사원 자격을 갖춘 ISO 추진본부요원에게 각각 업무 분담과 책임 체계를 조직화하고 최고 경영자로부터 일선생라인 직원에 이르기까지 전사적 품질경영을 도모해 왔으며 이러한 품질과 기술경쟁력 제고에 주력해 온 노력이 이번 인증 획득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와함께 「기술 우위의 신제품 개발, 경쟁력 확보의 품질경영, 전사원의 자질향상」을 경영이념으로 한 수영전기기업은 올해 「품질 납기원가 기술개발」에 대한 정착을 위한 관리체계혁신에 주력하기로 하는 한편 이번 ISO 9001 인증 획득을 계기로 내수는 물론 수출사업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LG電線(株), 스리랑카에 통신망구축 턴키 수주

LG電線(株)(代表: 權炆久)는 스리랑카 체신청과 4000만 달러 상당의 통신망 설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SLT(스리랑카 체신청 산하기관)이 작년에 실시한 스리랑카 통신망 15만회선 구축공사 입찰에서 일본의 미쓰이 상사와 국제 컨소시엄으로 응찰했던 동사는 이 공사를 턴키 베이스로 수주해 케이블을 비롯한 총 공사비용 2700만 달러를 받기로 했으며 이는 국내 전선업체로서는 해외 통신망 구축공사를 최초로 턴키베이스 수주한 것이며,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는 최대 규모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스리랑카 전국지역에 걸친 대규모 통신망 공사로서 LG전선은 네곰보(Negombo), 케갈레(Kegalle), 폴로나루와(Polonnaruwa)지역에 광케이블과 통신케이블, 포설 공사를 LG기공과 함께 턴키로 공급기로 하고 오는 5월 케이블선적을 시작하여 '96년 12월까지 18개월에 걸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LG전선은 이번 Sri Lanka통신망 구축공사의 턴키 수주를 계기로 통신망 공사의 기술적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향후 동남아는 물론 동유럽까지 통신망 시스템 사업을 확장기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啓洋電機(株), 전기진동드릴 본격 市販

전동공구 전문 생산업체인 啓洋電機(株)(代表: 李相翊)가 전기진동 드릴을 개발하고 본격생산에 나섰다.

계양전기가 개발기간 1년, 개발비 2억여원을 투입하여 DMV-10에 이어 개발한 DMV-13(일명 “만능드릴”)을 각종 철재를 비롯, 콘크리트 및 목재등에 구멍을 뚫거나 나사의 체결/분해시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드릴이다.

특히 모터축에 장착된 헬리컬기어 및 감속용기어로 감속된 회전동력이 진동을 발생시키는 리체를 거쳐 드릴축에 전달되는 동력구조로 HAMMER드릴로의 성능도 갖추고 있다. 또 속도조절 장치의 부착으로 여러 작업조건에 대응할 수 있으며 회전방향이 자유로이 조절되어 소나사등을 자유로이 분해, 조립 할수있고 이중 절연구조로 설계되어 사용자의 안정성을 고려했으며 가정 및 산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게 특징이다. 계양전기는 초년도 내수판매 약 4,000대의 판매목표를 세우고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수출할 계획이며 DMV-13을 세계적인 상품(WORLD BEST)으로 자신있게 권하고 있다. 이어서 현재 국내 드릴시장에서 수입제품의 점유율이 높은 전기 햄머드릴기종인 PHD-22제품을 금년 4월 출시를 목표로 개발중에 있다.

金星計電(株), ISO 공동 인증 획득

金星計電(株)(代表:白重英)가 한국능률협회(KMA-QA) 독일의 국제적 품질인증 기관인 TuV로 변압기, 주유기 등 9개 품목에 대한 ISO 9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였다.

국내와 외국인증기관의 인증을 함께 받은것은 외국인증기관보다 국내인증기관을 활용토록 유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함과 동시에 수출시 외국인증기관의 인증이 요구되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공동인증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성계전은 전기 및 기계분야의 품질검사에서 세계적 권위를 갖고 있는 TuV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ISO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관리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교역상의 필수 요건인 ISO인증 획득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내인증기관의 인증을 함께 받음으로써 정부 물량 입찰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4년 3월부터 추진한 변압기, 주유기, 전력량계 등 9개 품목에 대한 인증 획득작업은 이전의 인증작업 경험과 품질혁신에 대한 의지로 1년여 만에 성공을 거두었고, 이 과정에서 업무표준화와 품질관리시스템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사원이 공유하는 등의 올바른 품질문화의 정착을 이끌어 내는 성과가 있다.

이중 몇가지 제품은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제품의 안정성이 특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번 ISO 인증 획득은 고객들의 품질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93년 7월 PLC와 인버터, 8월에 MCCB(배선형차단기)와 ELB(누전차단기)등에 대한 ISO 9002 인증을 획득한 바 있는 금성계전은 이번 9개 품목에 인증 획득으로 쏠제품에 대한 ISO 인증 획득이라는 품질혁신 목표를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금성계전은 21C 품질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활동을 펼쳐 보다 완벽한 전사적 품질보증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東邦電機工業(株), 가스개폐기 한전개발 채택

변압기전문제조업체인 東邦電機工業(株)(代表:梁友鉉)가 가스개폐기(GIS)시장에 신규 진출했다.

동방전기는 최근 새로 개발한 258kV 가스절연(SF6)부하개폐기품목에 대해 한전의 개발채택을 완료,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동사는 사업다각화 일환으로 93년말부터 가스개폐기 연구개발에 착수, 1년 6개월동안 총 5억원을 투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전개, 국산화에 성공한데 이어 한전 개발채택을 따내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안산공장내에 1백평 규모의 항온항습실을 새로 설치, 고품질 제품생산을 위한 제반설비를 완벽하게 갖추었으며 이번 한전개발채택을 계기로 앞으로 고품질저가형 제품개발에 주력, 고객만족을 실현시킨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통상산업부로부터 기계류 부품소재 국산화품목으로 고시를 받아 추진중인 (SF6)가스절연 배전용변압기 방열냉각장치개발(94. 1. 1~96. 12. 31)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부문의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축적, 고신뢰성 SF6가스절연변압기를 국내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변압기업체로는 최초로 추진되어 전기공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한중합작변압기공장 설립은 당초 목표했던대로 진행중으로서 실무적인 작업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내달중 중국측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변압기는 중국을 비롯 동남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韓一電線(株), 초고압케이블 생산라인 건설

전력 통신케이블 전문생산업체인 韓一電線(株)(代表: 卞先浩)가 최근 京畿道 화성공장을 忠北 옥천으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제2도약기를 맞았다.

한일전선은 그동안 건설중이던 옥천 생산라인을 지난해말 마무리 짓고 조만간 준공식과 함께 통신·전력·기기선등 신제품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건설된 충북 옥천의 한일전선 생산라인은 공장부지 2만평규모의 연간 생산량 1천억원 규모로 기존 생산라인에 154kV등 초고압케이블라인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한편 한일전선은 지난해 4월 1일 삼성그룹이 전격적으로 계열사로 포함시키면서 경영권 전부를 위임받아 운영에 들어간 상태로 관련업계에서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株)東南物産, 변전소 스위치기어용 알루미늄탱크 국산화

금구류및 전자부품메이커인(株)東南物産(代表: 李炳均)이 변전소 가스 인슐레이션 스위치기어(GIS)용 알루미늄탱크및 導體를 국산화했으며 동사는 3년간의 연구끝에 전량수입하던 GIS용 알루미늄탱크와 도체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동남물산은 이로써 연간 2백50만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후지 전기등과 30만달러상당의 수출계약을 맺어 곧 선적하게되며 이와함께 3억원을 들여 한전과 공동으로 배전선로 고장지점감식기를 개발, 오는 7월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GIS란 변전소의 변압기 금구류 애자들을 콤팩트화, 지하에 매설할때 담는 용기인데 가스 밀폐에 의한 전기절연방식을 쓰기때문에 용기본체인 알루미늄탱크와 도체가 고도의 밀폐성 정밀성 내구성을 지녀야 하며 먼거리 배전선로에서 이상이 생길 경우 그 위치를 자동으로 알려줌으로써 정전시간 단축및 인력절감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제품으로 지금까지는 전압및 선로특성이 달라 수입품마저 쓰지 못하고 고장지점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